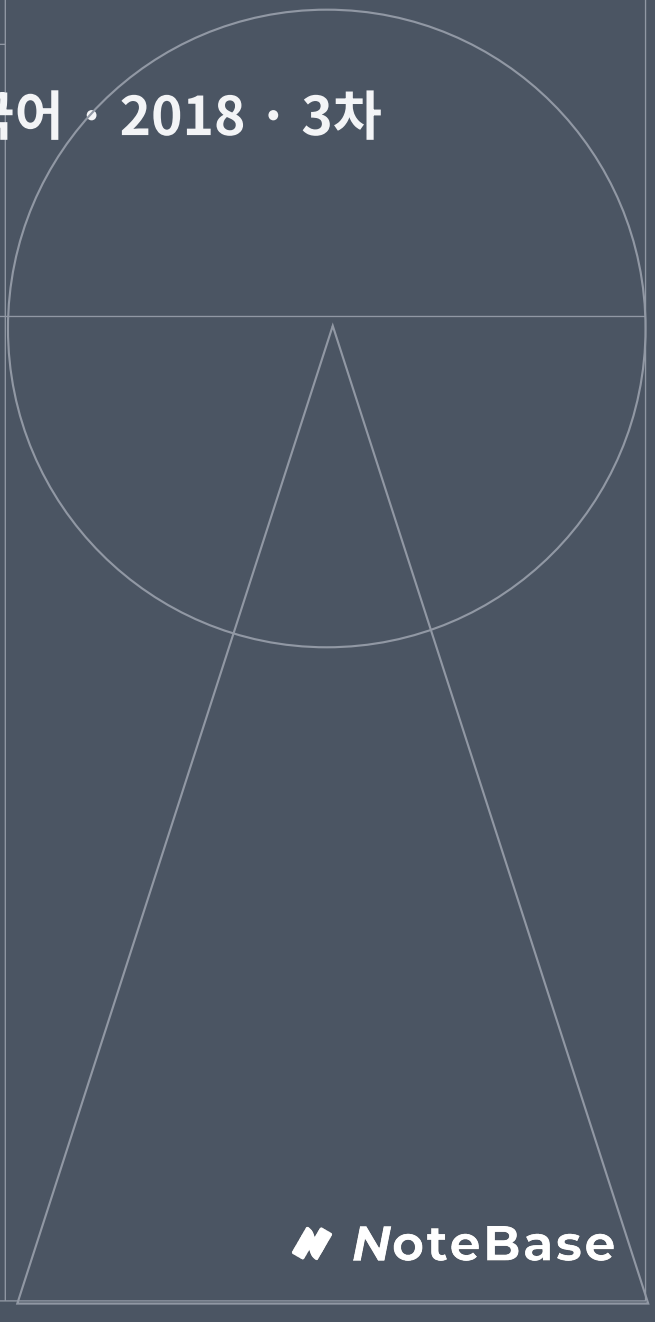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3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3차

문 1. 파생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치솟다, 고무신

② 새빨갛다, 놀이

③ 얽매다, 풋사랑

④ 굶주리다, 까막까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새빨갛다는 접두사 '새-'와 어근 '빨갛-'의 결합이고, 놀이는 어근 '놀-'과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결합이므로 둘 다 파생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치솟다는 접두사 '치-'가 어근 '솟-'에 붙은 파생어이지만, 고무신은 어근 '고무'와 어근 '신'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둘 다 파생어'라는 묶음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치솟다는 파생어, 고무신은 합성어'이다.

② O
새빨갛다는 '새-+빨갛-+다', 놀이는 '놀-+-이'로 분석된다. 두 단어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X
얽매다는 어근 '얽-'과 어근 '매-'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풋사랑은 접두사 '풋-'이 어근 '사랑'에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둘 다 파생어'라는 묶음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얽매다는 합성어, 풋사랑은 파생어'이다.

④ X
굶주리다는 어근 '굶-'과 어근 '주리-'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까막까치는 까마귀와 까치를 아울러 이르는 합성어이다. 따라서 '파생어끼리'라는 판단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두 단어 모두 합성어이다.

오답 포인트

뜻을 강하게 만드는 '치-', '새-', '풋-'은 접두사이므로 이들이 붙은 단어는 파생어이다. 반면 얽매다와 굶주리다는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 뒤 접사가 포함되면 파생어,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했으면 합성어로 판단한다. 각 묶음의 두 단어가 모두 같은 형성 방식인지 끝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접사+어근은 파생어, 어근+어근은 합성어이다. 새빨갛다와 놀이는 파생어이고, 얽매다와 굶주리다는 합성어이다.

NoteBase

문 2.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다. 다음 중 음운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테’에서의 모음
② ‘밤□/밤’에서의 장단
③ ‘가지/바지’에서의 어두 자음
④ ‘시름/주름’에서의 첫째 음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음운이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 단위임을 알고, 자음·모음 같은 분절 음운과 장단 같은 비분절 음운을 음절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절 음운: 소리의 흐름을 자음이나 모음처럼 나눌 수 있는 음운이다.
비분절 음운: 소리의 길이처럼 분절 음운에 얹혀 의미를 구별하는 음운이다.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이며,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음운의 유형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태/테’는 모음 ‘ㅐ/ㅔ’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모음이라는 분절 음운의 사례이다.
② O — ‘밤□/밤’은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뜻이 구별되므로 장단이라는 비분절 음운의 사례이다.
③ O — ‘가지/바지’는 첫소리 ‘ㄱ/ㅂ’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자음이라는 분절 음운의 사례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첫째 음절’이다. 음절은 음운의 유형이 아니며, ‘시/주’에는 어두 자음 ‘ㅅ/ㅈ’과 모음 ‘ㅣ/ㅜ’의 차이가 함께 있다. 올바르게는 한 음운만 달라져 의미가 구별되는 자음·모음 또는 장단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시름/주름’의 첫째 음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 보고 음운의 사례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시’와 ‘주’는 음절 전체가 다르고 자음과 모음도 동시에 달라지므로 의미를 변별하는 하나의 최소 단위를 보여 주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말의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 차이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장단 하나처럼 더 작게 나눌 수 없는 단일 차이인지 확인한다. 음절 전체가 제시되었다면 그 안에서 둘 이상의 음운이 함께 달라지는지도 살핀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음·모음은 분절 음운, 장단은 비분절 음운, 음절은 음운의 결합 단위이다.

NoteBase

문 3. 맞춤법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 갈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사후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일단 갈등이 야기되고 확대된 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써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바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공공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양상이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때는 사후적 접근 방법보다 예방적 접근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로서'와 '-로써'를 구별하고, '부딪히다'와 '걷잡다'의 올바른 활용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서'는 지위·신분·자격을, '-로써'는 수단·도구·재료를 나타낸다. '방법이다'라는 성격을 밝힐 때에는 '방법으로서'를 쓰고, 어떤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일 때에는 '-함으로써'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반대에 부딪히다'는 반대나 장애에 맞닥뜨린다는 뜻이며, '부딪히어'가 줄어든 '부딪혀'가 바른 활용형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방법으로써'이다. 여기서는 사후적 접근이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라는 지위·성격을 나타내므로 '방법으로서'로 고쳐야 한다.
③ O — '도모함으로써'는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뜻이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로써'가 알맞다.
④ O — '걷잡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형세를 붙들어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주로 '걷잡을 수 없다'의 형태로 쓰인다. 따라서 '걷잡을'이 바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방법'이라는 명사만 보고 수단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사후적 접근은 … 방법이다'라는 관계이므로 자격·성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가 맞다. 또한 ④의 '걷잡다'는 '대강 짐작하다'라는 뜻의 '겉잡다'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 지위나 자격에서'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로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로써'를 쓴다. '수 없다'와 어울려 통제 불능을 뜻하면 '걷잡다', 대강 헤아린다는 뜻이면 '겉잡다'이다.

암기 포인트

자격은 '로서', 수단은 '로써'이다. 방법의 성격이면 '방법으로서', 행동을 수단으로 삼으면 '-함으로써'이다.

NoteBase

문 4.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주에∨온∨지∨십여∨년이∨됐다.
② 지금∨부터는∨오는∨대로∨입장해야∨한다.
③ 그밖의∨사안은∨차기로∨이관하도록∨한다.
④ 이∨방법은∨쇠의∨강도를∨높이는데∨활용될∨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는 체언 등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기 어렵지만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 일정한 상태나 경우를 나타내는 '대로', 일이나 경우를 나타내는 '데'가 대표적인 의존 명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온 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십여 년'의 '년'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따라서 '제주에 온 지 십여 년이 됐다.'는 원칙에 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지금 부터는'이다. '부터'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지금부터는 오는 대로 입장해야 한다.'로 써야 한다. 여기서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오는 대로'처럼 띄어 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그밖의'이다. 이때 '밖'은 '그것 이외'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관형사 '그'와 띄어 '그 밖의 사안은 차기로 이관하도록 한다.'로 써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높이는데'이다. 여기서 '데'는 방법이 활용되는 일이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이 방법은 쇠의 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이다.'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부터'는 조사라서 붙여 쓰지만 같은 문장에 있는 '대로'는 의존 명사라서 띄어 쓴다. 또한 ④의 '-는데'라는 연결 어미 형태에 익숙하면, 이 문장의 관형형 '높이는' 뒤에 의존 명사 '데'가 온 구조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과의 관계만 나타내는 조사인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인지 먼저 판별한다. 조사이면 붙여 쓰고, '온 지·오는 대로·높이는 데'처럼 관형어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 '지·대로·데'는 띄어 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았-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받았다./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 야, 눈이 왔구나./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

①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네.
② 빚쟁이가 도망가고 없네. 돈은 이제 다 받았군.
③ 안 본 사이에 그 증상에서 말끔히 벗어났구나.
④ 서재가 왜 이리 어지럽니?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어말 어미 '-았-'이 실제 과거·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와,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았-'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거나, 완료된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문맥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보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할 때 쓰인다. 이 문항의 빈칸에는 세 번째 용법, 즉 미래의 일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예문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소풍은 '내일'의 일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비 때문에 소풍을 갈 수 없게 된 미래의 결과를 '다 갔네'라고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표현한 예이다.
② O — 돈을 받는 일은 앞으로의 일이지만, 빚쟁이가 도망가 버려 받을 수 없게 된 결과를 '다 받았군'이라고 반어적으로 확정하여 말한 예이다.
③ X — '안 본 사이에'와 '벗어났구나'는 증상에서 이미 벗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에도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틀린 부분은 이를 미래의 일을 확정적으로 말한 예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제시된 뜻풀이의 두 번째 용법에 해당한다.
④ O — 아버지께 혼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질러진 서재 때문에 앞으로 혼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혼났다'라고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한 예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과거형 '-았-'이 쓰였다는 겉모양만 보면 용법을 구별하기 어렵다. ③은 완료된 상태의 현재 지속이고, ①·②·④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확정적으로 앞당겨 표현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건이 발화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이미 일어나 그 결과가 현재에 남아 있으면 완료·지속 용법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과거형으로 단정하면 미래의 확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암기 포인트

이미 일어남은 과거·완료,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았-'이면 확정된 미래이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은 쉽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편이다.

② 좋지도 않는 취미인데 주말만 되면 난리다.

③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예쁘지도 않는 화단을 뭐 그리 애써 가꾸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 않다'가 용언의 성격에 따라 관형형 '않는'과 '않은'으로 달라지는 것을 묻는다.

핵심 개념

앞말이 동사이면 보조 동사 '않다'를 써서 현재 관형형이 '않는'이 되고, 앞말이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 '않다'를 써서 현재 관형형이 '않은'이 된다. '늙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쉽다·좋다·예쁘다'는 형용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쉽다'는 형용사이므로 '쉽지 않는'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② X — '좋다'는 형용사이므로 '좋지도 않는'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좋지도 않은 취미'이다.
③ O — '늙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현재 관형형 '늙지 않는 사람'이 적절하다.
④ X —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예쁘지도 않는'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예쁘지도 않은 화단'이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모두 '-지 않다'의 꼴이라서 '않는'을 똑같이 쓰기 쉽다. 그러나 ③의 '늙다'만 동사이고, ①·②·④의 '쉽다·좋다·예쁘다'는 형용사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않다' 앞의 본용언부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별한다. 동사의 현재 관형형은 '-지 않는', 형용사의 현재 관형형은 '-지 않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사는 '않는', 형용사는 '않은'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눈'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밤눈이 매우 밝은 편이다.

① 혜정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② 혜정이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③ 영수는 조금만 화나면 눈을 부라린다.
④ 영수는 눈도 좋은데 멋으로 안경을 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다의어 '눈'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밤눈이 밝다'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알아보는 시력이나 능력을 뜻한다.

핵심 개념

'눈'은 문맥에 따라 신체 기관, 시력, 사물을 판단하는 안목 등의 의미로 쓰인다. '밤눈이 밝다'에서는 눈이라는 신체 기관 자체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잘 보는 시력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눈이 초롱초롱하다'의 '눈'은 얼굴에 있는 신체 기관을 뜻한다.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가 되려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는 시력이 좋다'는 뜻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X
'보는 눈이 정확하다'의 '눈'은 사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나 판단력을 뜻한다.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가 되려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좋다'는 뜻으로 바뀌어야 한다.

③ X
'눈을 부라린다'의 '눈'은 화가 나서 크게 뜨는 신체 기관을 뜻한다.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가 되려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는 시력이 있다'는 뜻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O
'눈도 좋은데'의 '눈'은 사물을 보는 능력인 시력을 뜻한다. '밤눈'의 '눈'도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시력이나 능력을 뜻하므로 의미가 가장 가깝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눈’이라는 형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도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특히 ②의 ‘보는 눈’은 실제 시력이 아니라 안목을 뜻하고, ④의 ‘눈이 좋다’가 시력을 뜻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를 문맥에 맞는 쉬운 말로 바꾼 뒤 각 선지에도 같은 말을 넣어 본다. 이 문항에서는 ‘눈’을 ‘시력’으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운 ④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밤눈이 밝다의 ‘눈’은 시력, 보는 눈이 정확하다의 ‘눈’은 안목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높임 표현의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이는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주체를 높이는 방식, 객체를 높이는 방식,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① 혜정아, 선생님께 여쭤 보고 결정해라.
② 혜정아,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나가니?
③ 영수야, 주말에 할머닐 모시고 동물원에 가자.
④ 영수야, 새벽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가실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1~3번은 객체 높임이고, 4번은 주체 높임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가 대표적인 표지이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등을 사용한다.
청자 높임은 종결 표현을 통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선생님께 여쭤 보고'의 '께'와 '여쭤 보다'는 질문을 받는 선생님, 즉 객체를 높인다. '나머지와 다른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② X —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의 '께'와 '드리다'는 전화의 상대인 아버지, 즉 객체를 높인다. '나머지와 다른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③ X — '할머닐 모시고'의 '모시다'는 함께 가는 대상인 할머니, 즉 객체를 높인다. '나머지와 다른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④ O — '할아버지께서는'의 '께서'와 '가실까'의 '-시-'는 '가다'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 따라서 주체 높임으로서 나머지와 방식이 다르다.

오답 포인트

2번의 '께'와 4번의 '께서'를 비슷하게 보고 같은 높임으로 판단하기 쉽다. '께'는 높이는 대상이 부사어일 때 쓰는 객체 높임 조사이고, '께서'는 높이는 대상이 주어일 때 쓰는 주체 높임 조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이 가리키는 인물이 서술어의 주체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 인물이 행동의 주체이고 '께서, -시-'가 쓰이면 주체 높임이며,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고 '께,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가 쓰이면 객체 높임이다.

암기 포인트

'께서·-시-'는 주체 높임, '께·드리다·모시다·여쭙다'는 객체 높임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들 말로는 동희가 가장 예쁘데.
② 신문 기사에서 내일 오전에는 무지 춥데.
③ 내가 옆에 서 봤는데 농구 선수가 크긴 크데.
④ 요즘 들어 컴퓨터가 왜 이리 말썽을 일으킨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대'와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회상하여 말하는 '-데'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할 때 쓴다.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보거나 겪어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쓴다. 특히 동사에는 '-데'가 어간에 바로 붙으므로 '일으키데'처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람들 말로는'은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뜻이므로 '예쁘데'가 아니라 '예쁘대'가 맞다.
② X — '신문 기사에서' 접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므로 '춥데'가 아니라 '춥대'가 맞다.
③ O — '내가 옆에 서 봤는데'는 말하는 사람이 농구 선수의 키를 직접 보고 경험했음을 나타내므로 '크데'가 적절하다.
④ X — '일으키다'는 동사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타내는 '-데'는 동사 어간에 바로 붙는다. 따라서 '일으킨데'가 아니라 '일으키데'가 맞다.

오답 포인트

'-대'와 '-데'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정보의 출처가 다르다. 특히 ④의 '일으킨데'는 '-ㄴ데'의 겉모양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직접 경험을 회상하는 종결 어미 '-데'를 쓰려면 동사 어간에 바로 붙여 '일으키데'라고 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한다. 남에게 들은 말이면 '-대', 직접 보거나 겪은 사실이면 '-데'를 선택한다. 이어서 동사에 직접 경험의 '-데'가 붙을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끼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들은 말은 '-대', 직접 경험은 '-데'이다. 동사의 직접 경험형은 '일으키데'처럼 어간에 '-데'를 바로 붙인다.

NoteBase

문 10.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중 한 명이 나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② 겨우내 팽이와 썰매를 타던 논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

③ 국세청은 사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열람되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④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호응, 서술어의 적절한 결합,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둘 이상의 목적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함께 쓸 때에도 각각의 결합이 자연스러우며,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그중 한 명이’가 ‘나서면서’와 ‘소리쳤다’의 공통 주어가 되어 문장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나서면서’는 나서는 동작과 소리치는 동작이 이어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낸다.

② X
틀린 표현은 ‘팽이와 썰매를 타던’이다. ‘타다’는 ‘썰매’와는 결합하지만 ‘팽이’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팽이를 치고 썰매를 타던 논에는 어느새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와 같이 쓴다.

③ X
틀린 표현은 ‘열람되어지는’이다. ‘열람되다’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다시 결합한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의 정보가 사적으로 열람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는 ‘개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와 같이 쓴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어 ‘생각은’과 서술어 ‘행복할 수 있었다’의 호응이다. 이 서술어는 ‘생각’의 내용을 완결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내가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와 같이 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팽이'와 '썰매'를 조사 '와'로 묶어 같은 서술어 '타다'에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③은 '열람되어지는'의 피동 표현이 겹쳤고, ④는 문장의 뜻이 통하는 듯해도 '생각은'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빠져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확인하고, 묶인 목적어들이 뒤의 서술어와 각각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살핀다. 이어 '되다'와 '-어지다'가 겹친 이중 피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문장 표현의 적절성은 주어·서술어 호응, 목적어·서술어 결합, 이중 피동 여부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꾸앙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① 섬세한 문체와 풍자적 어조를 통해 시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②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제시했다.

③ 소외되고 꿈과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④ 인물들은 구체적인 이름 없이 '사내', '안', '나' 등으로 익명화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나타난 문체·어조, 인물 설정,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세 남자의 하룻밤을 통해 도시인의 소외, 인간관계의 단절, 삶의 무기력을 드러낸 단편 소설이다. 인물의 비극을 격렬한 분노나 풍자로 고발하기보다 간결하고 절제된 서술과 단절된 대화로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풍자적 어조를 통해 시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 작품은 간결하고 절제된 서술, 무기력하게 이어지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도시인의 소외와 관계 단절을 드러낸다.
② O — '나', '안', '사내'는 서울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밤을 보낸다. 이들의 만남과 사내의 비극은 1960년대 도시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단면을 보여 준다.
③ O — 아내의 시체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내의 절망과 서로 깊이 관계 맺지 못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꿈과 생명력을 잃은 현대인의 소외된 삶을 형상화한다.
④ O — 인물들은 완전한 이름과 구체적 신상 대신 '나', 성으로만 불리는 '안', 보통명사인 '사내'로 제시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개별 인물의 문제를 당시 도시인의 보편적인 소외로 확장한다.

오답 포인트

비참한 현실이 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의 어조를 곧바로 '분노'나 '풍자'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사내의 비극을 대하는 인물들의 침묵과 무기력, 건조하게 이어지는 대화가 핵심이며, 현실을 직접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어조가 중심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은 '무엇을 다루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이 작품의 내용은 도시인의 비극과 소외이고, 표현 방식은 우연한 만남, 익명화된 인물, 간결하고 절제된 서술과 단절된 대화이다.

암기 포인트

「서울, 1964년 겨울」은 '우연히 만난 익명의 세 남자 → 단절된 대화 → 도시인의 소외와 무기력'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2. (가)의 내용에 이어지는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는 신분 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나)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 명법과는 구분된다.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를 하는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라)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다.

(마)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NoteBase

① (다)-(나)-(마)-(라)
② (나)-(다)-(라)-(마)
③ (다)-(라)-(마)-(나)
④ (라)-(나)-(다)-(마)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근거로 글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다) 근대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칸트 윤리학과 연결한다.
(나) '또한'을 통해 자유와 도덕적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언 명법을 소개한다.
(마) '따라서'를 통해 정언 명법이 보편적 원칙이 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라) '하지만'을 통해 앞서 설명한 칸트 윤리학에 대한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의 비판을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다)의 '이런 시대적 변화'는 (가)의 근대로의 이행을 받고, (나)에서 소개한 정언 명법의 보편성이 (마)에서 정리된 뒤에야 (라)의 반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다)의 '이런 시대적 변화'가 (가)의 내용을 직접 이어 받고, (나)의 정언 명법 설명이 (마)의 '따라서'로 정리된 뒤 (라)의 '하지만'이 반론을 제시하므로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나)를 (다)보다 먼저 두고, (라)를 (마)보다 먼저 둔 순서이다. (나)의 '또한'에 앞서 칸트 윤리학을 화제로 제시하는 (다)가 와야 하며, (라)의 '하지만'에 앞서 칸트 윤리학의 보편성을 완성하는 (마)가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다) 바로 뒤에 반론인 (라)를 둔 순서이다. (라)는 정언 명법과 보편 법칙에 관한 앞선 설명 전체를 비판하므로, (나)와 (마)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역접 표현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라)를 맨 앞에 둔 순서이다. (라)가 반박할 칸트 윤리학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므로 (라)는 마지막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또한'만 보고 (나)를 첫 문단으로 선택하거나, (라)의 비판 내용을 칸트 윤리학 설명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 함정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가)를 직접 받는 표현이고, '하지만'은 앞선 긍정적 설명 전체를 전환하는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앞 문단을 직접 받는 지시어를 찾고, 다음으로 '또한'의 첨가 관계와 '따라서'의 결론 관계를 연결한 뒤, '하지만'이 전환할 앞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시어로 시작점을 잡고, 첨가·결론을 연결한 뒤, 역접은 반박 대상 뒤에 둔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과 그 주장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는 신분 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나)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 명법과는 구분된다.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를 하는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라)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다.
(마)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①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NoteBase

② 호네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자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타자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이 좌절될 경우 인간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③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칸트의 자율적·보편적 이성 중심 윤리학을 비판하는 관점과 각 철학자의 대표 주장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특히 인간의 자아 형성에 타자와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인정 이론이 지문의 비판과 맞닿아 있다.

핵심 정리

포퍼: 반증 가능성 — 경험적으로 반박될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호네트: 인정 이론 — 인간의 긍정적 자기 관계와 자아실현은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며, 인정의 좌절은 심리적 상처와 자아실현의 훼손을 낳는다고 본다.
흄: 귀납의 문제 — 과거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은 자연의 일양성을 전제하지만, 그 전제 자체를 귀납이 아닌 방식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다.
비트겐슈타인: 언어의 한계 — 초기 철학에서 사실을 그려 낼 수 있는 명제만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으며, 형이상학이나 윤리의 문제는 사실 명제처럼 말할 수 없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반증 가능성이 없는 주장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퍼의 반증주의를 정확히 설명하지만,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을 논한 철학자이므로 ㉠의 칸트 윤리학 비판과 직접 연결되는 인물이 아니다. ㉠에 맞는 연결은 호네트와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는 자아실현이다.
② O — 호네트는 인간이 사랑·권리·사회적 연대와 같은 상호 인정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기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실현에 이른다고 본다. 이는 타자를 배제한 보편적 이성만으로 자유로운 주체를 설명할 수 없으며, 타자의 인정이 좌절되면 상처와 억압이 발생한다는 지문의 비판과 부합한다.
③ X — '귀납은 자연의 일양성을 가정한다'는 내용은 흄의 귀납 비판과 연결되지만, 이는 경험적 추론의 정당화 문제이므로 ㉠의 칸트 윤리학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맞는 주장은 인간의 자아실현이 타자의 인정에 의존한다는 호네트의 인정 이론이다.
④ X — 형이상학적·윤리적 명제는 경험적 사실을 나타내는 명제처럼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관련되지만, 이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다룬다. 따라서 ㉠의 보편적 이성 중심 윤리학에 대한 타자 관점의 비판으로 고쳐 연결하려면 호네트의 인정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③·④도 각 철학자의 대표 주장과 대체로 연결되므로 '인물과 주장 자체가 맞는가'만 확인하면 흔들리기 쉽다. 문제는 그 인물이 ㉠의 비판 맥락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타자와의 관계 및 인정이 자아실현의 조건이라는 ②만 지문의 '타자 억압' 문제와 직접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의 핵심어를 '보편적 이성에 대한 비판, 타자, 억압'으로 압축한 뒤, 각 선지의 학자 키워드와 대조한다. 반증 가능성은 포퍼, 귀납과 자연의 일양성은 흄, 언어의 한계는 비트겐슈타인, 타자의 인정과 자아실현은 호네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호네트는 '인정이 있어야 긍정적 자기 관계와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무궁화는 어떤 의미에 있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자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외인은 혹 우리 한국을 불러 '은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연유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과연 은자의 나라다운 꽃이 있다면, 무궁화는 따라서 우리나라를 잘 상징하는 꽃이 되겠다. 무궁화는 첫째, 성을 따진다면 결코 여성이 아니다. 중성이다. 요염한 색채도 없고 ㉠馥郁한 방향도 없다. 양귀비를 너무 요염하다 해서 뜰에 넣지 않는 우리 선인의 취미에 맞을 뿐 아니라 향기를 기피하여 목서까지 뜰에서 추방한 아나톨 프랑스의 사제도 타협할 수 있을 은일의 꽃이다. 그리고 은자로서의 우리의 선인의 풍모를 잠깐 상상한다면 수수한 베옷이나 무명옷을 입고, 쥘부채를 들고 조그만 초당 뜰을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 무궁화 이외의 꽃을 쉬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무궁화는 은자가 구하고 높이는 모든 덕을 구비하였다. 무궁화에는 은자가 대기하는 ㉡俗臭라든가, 세속적 탐욕 내지 ㉢齷齪을 암시하는 데가 미진도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이 ㉣唾棄하는 요사라든가 망첩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를 찾아볼 구석이 없다. 어디까지든지 점잖고, 은근하고 겸허하여, 너그러운 대인 군자의 풍모를 가졌다.

① ㉠풍부-㉡욕취-㉢집착-㉣타엽

② ㉠복욱-㉡속취-㉢악착-㉣타기

③ ㉠풍부-㉡속취-㉢집착-㉣타기

④ ㉠복욱-㉡욕취-㉢악착-㉣타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상 뜻에 끌리지 않고 밑줄 친 한자어를 각 한자의 음에 따라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馥郁은 '복욱'으로 읽으며 향기가 매우 짙다는 뜻이다.
㉡ 俗臭는 '속취'로 읽으며 세속적인 냄새나 속된 기운을 뜻한다.
㉢ 齷齪은 '악착'으로 읽으며 몹시 모질고 끈덕진 태도를 나타낸다.
㉣ 唾棄는 '타기'로 읽으며 침을 뱉듯이 버리거나 몹시 멸시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 '풍부', ㉡ '욕취', ㉢ '집착', ㉣ '타엽'이 모두 잘못된 독음이다. 올바르게는 각각 '복욱·속취·악착·타기'이다.
② O — 馥郁은 '복욱', 俗臭는 '속취', 齷齪은 '악착', 唾棄는 '타기'로 읽으므로 네 독음이 모두 적절하다.
③ X — ㉡ '속취'와 ㉣ '타기'는 맞지만, ㉠ '풍부'와 ㉢ '집착'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 '복욱', ㉢ '악착'이다.
④ X — ㉠ '복욱'과 ㉢ '악착'은 맞지만, ㉡ '욕취'와 ㉣ '타엽'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 '속취', ㉣ '타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풍부·집착’처럼 익숙한 단어를 한자의 모양이나 문맥상 뜻에 대입하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선택지마다 맞는 독음과 틀린 독음을 섞어 놓았으므로 네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전체를 뜻으로 추측하지 않고 글자별 음을 먼저 확인한다. 馥-郁은 복-욱, 俗-臭는 속-취, 齷-齪은 악-착, 唾-棄는 타-기로 대응한 뒤 모든 항목이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馥郁 복욱, 俗臭 속취, 齷齪 악착, 唾棄 타기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이다.

② 고려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창작되었다.

③ 고려 신흥 사대부들의 집단 창작물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④ 주요 작품으로 「공방전」, 「죽부인전」, 「저생전」 등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가전체 문학의 형식, 전개 시기, 창작 주체와 문학사적 의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전체는 술·돈·대나무·종이 같은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그 생애를 전기의 형식으로 서술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하거나 교훈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다. 설화에서 소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집단 창작물이 아니라 문인들이 개별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한 뒤 그 가계와 생애 등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문학 작품이다.
② O — 가전체는 고려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도 계속 창작되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집단 창작물'이다. 가전체는 고려의 문인들이 개별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며,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적절하다. 올바르게는 '고려 문인들의 개인 창작물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공방전」은 돈, 「죽부인전」은 대나무로 만든 부인,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한 대표적인 가전체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신흥 사대부들의 작품'이라는 말 때문에 집단 창작물처럼 보이게 만든다. 특정 계층의 문인들이 즐겨 창작했다는 사실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뜻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전체 관련 선지는 '사물의 의인화', '전기 형식', '개인 창작', '설화와 소설의 교량'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작 계층과 창작 방식을 구분하면 '사대부 계층의 개인 창작'을 '집단 창작'으로 바꾼 함정을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전체는 사물을 사람처럼 세운 전기이며, 문인의 개인 창작이고 설화와 소설 사이의 다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속담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달걀에도 뼈가 있다: 뜻하지 않은 방해가 끼어 재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눈 온 뒤에는 거지 빨래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미난 골에 범 난다: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때리는 시늉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속담의 겉뜻에 끌리지 않고, 비유적으로 굳어진 실제 의미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속담은 오랜 생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풍자를 간결하게 나타낸 관용적 표현이다. 낱말의 표면적 의미보다 전체 표현에 굳어진 비유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뜻밖의 방해가 생겨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와 알맞다.
② O — '눈 온 뒤에는 거지 빨래한다'는 눈이 온 뒤에는 날씨가 비교적 따뜻해져 가난한 사람도 빨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와 알맞다.
③ O — '재미난 골에 범 난다'는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하거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끝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와 알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행동한다'이다. 이 속담은 한쪽이 때리는 시늉을 하자 다른 쪽이 곧 우는 시늉을 하는 것처럼 서로 손발이 잘 맞는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서로 손발이 잘 맞아 행동이 척척 맞는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상대의 행동에 곧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주관 없이 따라 한다'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속담의 초점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짜임새 있게 호응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속담을 구성하는 낱말을 그대로 풀이하지 않고, 표현 전체가 가리키는 상황을 떠올려 선지의 핵심 의미와 대조한다. 특히 '호응·협력'과 '맹목적 추종'처럼 비슷해 보이는 의미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때리는 시늉과 우는 시늉은 ‘부화뇌동’이 아니라 ‘서로 손발이 잘 맞음’이다.

NoteBase

문 17. 이 작품에 활용된 시점(視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① 서술자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 장면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하여 극적 효과를 야기한다.

② 중심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 긴장감과 경이감을 조성하며, 어떠한 인물을 관찰자로 설정했는가에 따라 소설의 효과가 달라진다.

③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지만,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다.

④ 서술자의 내면적 갈등이나 감정 등의 심리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 줄 수 있으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의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인물의 내면을 어느 범위까지 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외쳐 보고 싶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서술자 '나'가 중심인물이며 자신의 갈등과 욕망을 직접 드러낸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야기 속 주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중심인물의 내면을 직접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물의 대화와 행동, 장면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한다'는 설명은 이 작품의 서술 방식과 맞지 않는다. 서술자 '나'는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과 내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여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이다.

② X
'중심인물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작품에서는 중심인물인 '나'가 자신의 갈등, 희망과 야심, 날고 싶은 욕망을 직접 서술하므로 내면이 드러난다. 올바르게는 '중심인물인 서술자의 내면이 직접 드러난다'이다.

③ X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다'는 부분이 틀렸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 '나'와 중심인물이 동일하므로 둘의 거리가 가깝고, 독자도 '나'의 내면을 직접 접한다. 올바르게는 '서술자와 중심인물의 거리는 가깝고, 독자는 서술자의 내면에 밀착한다'이다.

④ O
서술자 '나'가 아내에게 돌아갈지를 고민하고 희망과 야심, 날고 싶은 욕망을 직접 밝히므로 내면의 갈등과 심리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만 모든 사건이 '나'의 인식과 감정에 걸러져 제시되므로 객관성이 제한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나'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이 작품의 '나'는 주변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갈등과 욕망을 말하는 중심인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나'가 중심인물인지 주변 관찰자인지를 확인한다. 이어 '나'의 내면이 직접 제시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다른 중심인물의 행동을 주로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나'가 주인공이고 자기 마음을 직접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데카당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럽 각지로 퍼진 퇴폐적인 정신적 경향을 말한다.

② 신비평: 작품을 독립된 자율체로 보고, 언어의 의미와 애매성, 이미지 등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총체적 뜻을 파악하려는 비평을 말한다.

③ 추체험: 작품을 읽으며 독자가 작품 속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서 그 작품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삼일치의 법칙: 희곡 구성상의 법칙으로 인물, 시간, 장소의 일치를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학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지, 특히 삼일치의 법칙을 이루는 세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데카당스는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나 유럽에 퍼진 퇴폐적·탐미적 문예 경향이다.
신비평은 작품을 작가나 시대와 분리된 자율적 언어 구조로 보고 작품 내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비평 방법이다.
추체험은 독자가 작품 속 인물 등의 입장에서 그 경험과 내면을 되살려 체험하는 감상 방식이다.
삼일치의 법칙은 희곡에서 행동, 시간, 장소의 일치를 요구하는 구성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데카당스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두드러져 유럽 각지로 확산한 퇴폐적 정신·문예 경향을 가리키므로 적절하다.
② O — 신비평은 작품을 독립된 자율체로 보고 언어의 의미, 애매성, 이미지 등 작품 내부 요소를 분석하여 전체 의미를 파악하므로 적절하다.
③ O — 추체험은 독자가 작품 속 인물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 인물의 경험과 작품 세계를 내적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물, 시간, 장소의 일치'이다. 삼일치의 법칙은 '행동, 시간, 장소의 일치'를 뜻하며, 인물의 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④의 '인물'은 희곡의 구성 요소처럼 보여 '행동'과 혼동하기 쉽다. 삼일치에서 사건 구성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인물이 아니라 행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용어 정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명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삼일치가 제시되면 세 요소가 행동·시간·장소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삼일치는 행동·시간·장소의 일치이며, 인물의 일치가 아니다.

NoteBase

문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스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①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경성역에 머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정밀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② 주인공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

③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④ 이 작품의 작가는 『천변풍경』, 『갑오농민전쟁』 등을 썼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나타난 공간 이동, 도시인의 고독, 모더니즘적 표현 기법과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도시 풍경과 내면 의식을 그린 박태원의 모더니즘 소설이다. 카메라로 포착하듯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는 기법과 인물의 의식 흐름을 따라가는 서술이 특징이며, 군중 속에서도 타인과 교감하지 못하는 도시인의 고독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하루 동안 경성역에 머물며'이다. 구보는 경성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경성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배회하며 도시와 사람들을 관찰한다. 올바르게는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도시 풍경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소설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지문에서 구보는 고독을 피하려고 삼등 대합실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온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독을 느낀다. 이는 군중 속 개인의 소외를 보여 준다.
③ O — 이 작품은 도시적 일상과 인물의 내면 의식을 실험적인 서술 기법으로 포착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이다.
④ O — 이 작품의 작가는 박태원이며, 박태원은 「천변풍경」과 「갑오농민전쟁」도 썼다. 따라서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카메라로 찍듯이 정밀하게 묘사한다'는 작품의 기법상 특징을 맞게 제시하여 그럴듯하지만, 활동 공간을 '경성역' 하나로 한정한 것이 함정이다. 경성역은 구보가 들르는 여러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은 작가·시대·주제·기법뿐 아니라 인물의 이동 범위와 사건의 시간까지 나누어 확인한다. 이 작품은 '하루 동안 경성 시내 배회 — 도시 관찰 — 군중 속 고독 — 모더니즘적 기법'의 연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박태원 — 구보의 경성 시내 배회 — 군중 속 고독 — 1930년대 모더니즘으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② 후각, 촉각, 시각적 이미지가 두루 활용되었다.

③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다.

④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제와 감각적 이미지, 계절적 배경, 작품의 중심 정서를 시어와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작품의 표현상 특징은 시 속의 구체적인 시어로 확인하고, 주제는 화자의 처지와 반복되는 정서를 종합하여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형 표현과 여러 감각적 이미지가 고향의 풍경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을 부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떠내려간다', '눈물 지운다', '휩쓸어 간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으로 고향의 풍경을 눈앞의 일처럼 제시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② O — '흙이 풀리는 내음새'와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후각적 이미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는 촉각적 이미지, 떠내려가는 얼음장과 전나무 우거진 마을 등은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③ O — '흙이 풀리는' 모습과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은 겨울이 끝나고 해동이 시작되는 이른 봄의 정경을 나타낸다.
④ X — 틀린 표현은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고향'이다. 작품에는 산업화로 고향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고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선뜻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느끼는 슬픔과 소외감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사라져 가는 고향'이라는 말이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와 어울려 보이지만, 그 원인을 '급격한 산업화'에서 찾을 만한 시어는 없다. 정서가 그럴듯하더라도 작품에 제시되지 않은 시대적 원인을 덧붙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 특징은 관련 시어를 직접 대응시키고, 계절은 자연 현상의 단서로 판단한다. 주제 선지는 작품 속 화자의 상황과 정서뿐 아니라 선지에 제시된 원인까지 본문에서 확인되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해빙의 이른 봄, 현재형의 생생함, 감각적 고향 풍경, 귀향하지 못하는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이 핵심이다.

NoteBase